

- 주요 뉴스: OECD,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제한적
 - 미국 재무장관,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유럽은 금년 겨울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소지
 - UAE 에너지장관, 국제유가는 아직 최고치에 근접하지 않은 상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1%],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불안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되며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1.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긴축강화 전망 등으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57.3원, +3.5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6/8일	6/7일	전일대비			6/8일	6/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15.8	4,160.7	-1.08%	국채 금리 10y	미국	3.02%	2.97%	5bp
	유럽	440.37	442.88	-0.57%		독일	1.35%	1.29%	6bp
	중국	3,263.8	3,241.8	0.68%	CDS 5y	한국	43bp	43bp	0bp
	일본	28,234	27,944	1.04%		중국	69bp	69bp	0bp
	한국	2,626.2	2,626.3	-0.01%	위험 지표	EMBI+	-	384	-
환율	달러지수	102.55	102.32	0.22%		VIX	23.96	24.02	-0.25%
	유로화	1.0716	1.0703	0.12%		WTI유	122.11	119.41	2.26%
	엔화	134.25	132.59	-1.24%	원자재	구리	445.5	443.6	0.43%
	위안화	6.6838	6.6705	-0.20%		금	1,853.4	1,852.4	0.05%
	원화	1,253.8	1,257.7	0.3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OECD,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제한적
 -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지속 등을 이유로 금년 및 내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서 제시(각각 4.5%→3.0%, 3.2%→2.8%).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금년에 8.5%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높은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와 같은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선진국 경제는 당시보다 원유 의존도가 감소했으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도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
 - 지역별로도 미국(3.7%→2.5%, 2.4%→1.2%), 유로존(4.3%→2.6%, 2.5%→1.6%), 중국(5.1%→4.4%, 5.1%→4.9%)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이 대부분 하향.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핵심 요인은 각각 재정부양책 종료와 코로나 19 경제붕쇄
 - 한편 미국과 동부 유럽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강력한 통화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 또한 러-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유로존이 될 것으로 진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옐런 장관은 단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어려우며, 금년 물가상승률은 정부 전망치 4.7%를 상회할 수 있다고 언급.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문제는 아니며,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첨언
-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 주요 중앙은행은 '24년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Bridgewater Associates의 달리오 최고투자책임자는 전세계 경제가 일정 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후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 번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발언
-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유럽은 금년 겨울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소지
 - 비롤 사무총장은 러-우 전쟁 등으로 에너지 부족이 유럽에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천연가스 시장을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

■ 독일 4월 산업생산, 예상치 하회. 공급차질 지속 등에 기인

- 해당 생산은 전월비 0.7% 늘어 전월(-3.7%) 대비 증가했으나 예상치(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이는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차질 등이 원인

■ 중국 국무원, 경제 하방 압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당국은 이와 같은 하방 압력을 극복하고 2/4분기에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도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총재, 연준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으면 달러화 영향은 제한적

- 구로다 총재는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을 원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명확하며, 이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중국의 코로나 19 관련 봉쇄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 UAE 에너지장관, 국제유가는 아직 최고치에 근접하지 않은 상태

- Suhail Al-Mazrouei 장관은 중국의 소비가 최근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고려한다면, 아직 전세계 수요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 원유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

■ 인도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반영

- 정책금리를 상향하여 4.90%로 결정.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로 인플레이션 제어가 주요 목적. 또한 성명서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향후 금리인상 등 추가적인 통화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제시
- 삭티칸타 다스 총재는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거론했던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6/8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4분기 성장률(확정치,전기비): 0.6%, '21년 4/4분기(0.3%), 속보치(0.3%)

■ 주요 경제 이벤트(6/9 현지시각 기준)

-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 6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중국 5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강세, 여타 국가의 원유 수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블룸버그

(In the Oil Market, the Strong Dollar Is the World's Problem)

- 에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로 표시. 이에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도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경우 원유 수입국의 부담은 일부 상쇄. 과거에는 이와 같은 달러화 약세가 유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
- 그러나 최근에는 유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동시 발생하여 이전과 상이. 골드만삭스는 달러화 강세로 여타 국가들이 배럴당 2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 다만 유가 상승의 지속은 궁극적으로 원유 수요 감소로 연결될 소지

■ ECB,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긴축정책이 요구 - Financial Times

(Europe faces a miserable few months ahead)

- 역내 경제는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5월 8.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며 고물가 장기화 전망이 확산. 이에 ECB는 고물가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에 나설 필요
- 유럽 경제는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하지만 ECB의 7월 및 9월 금리인상 신호 발신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세계 주요국의 주택경기, 금리상승 등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 - Financial Times

(Is the global housing market heading for a downturn?)

■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약세장의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Beware of a Bear Market That Is More Than a Cub)

■ 일본 엔화 약세, 완화적 통화정책과 일본인의 해외투자 지속 등이 주요 요인 - 블룸버그

(Mrs. Watanabe Is Giving Cover to the Yen Carry Trad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